

축 사

대한불교천태종 총본산 구인사의 개산 70주년을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모든 종단과 함께 깊은 축하를 드립니다. 더불어 지난달 광화문에서 개최한 세계평화 기원대회에 성심으로 참여해 주신 천태종단과 불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천태종의 중창조이신 상월원각 조사께서 이곳 소백산에 구인사의 산문을 열어 중생구제의 법력을 펼치신 것은, 속세의 법연을 깨달음으로 승화한 커다란 덕화로 여겨집니다. 그 원력은 나라를 위하고 국민의 삶과 조화롭게 함께 하면서 오늘날 구인사를 중심으로 더욱 빛을 발하고, 요익중생의 행보를 확대해 나가는 지침이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구인사의 개산은 여러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500여 년 자취가 희미했던 천태종의 종지종통이 구인사의 개산과 더불어 현대인의 삶에 한 걸 가깝게 다가왔다는 것은 우리 불교사에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구인사는 지난 70년간 천태종의 정신적 도량으로, 한국불교 발전의 한 동력으로 지대한 역할을 함께 해 왔습니다. 정신문화를 계승하여 고양시키고, 주경야선 수행풍토를 총본산의 모범으로 구현하면서 사회와 시민에게 유익함으로 회향해 왔습니다.

조그마한 터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원력만큼 오늘의 대 도량으로 변모해 오기까지 천태종도들의 결집과 원력은 여러 종단과 불자들에게 모범이 되어주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천태종단에 기대하는 이유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분명히 발전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많은 과제들도 남아 있습니다. 정신문화의 위축과 도덕성의 결핍, 불균형에서 오는 여러 갈등과 남북의 화해 또한 함께 극복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나 불합리한 사회의 현상들이 연속되면서 국민들에게는 이를 이겨내는 용기보다 불안한 마음이 먼저 들어서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 불자들은 저마다의 정진으로써 희망의 중심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불은에 보답하고자 하는 우리 불자들은 불법의 가르침과 수행의 전통, 그리고 자비의 마음을 깊이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를 환하게 밝히는 따뜻한 등불이 되도록 모두 함께 정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천태종 구인사는 한국의 대표적 사찰 중 한곳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상월조사께서 첫 발을 내딛었던 그 원력으로 오늘에 이르렀기에, 앞으로 천태종 사부대중 모두의 역량이 사회에 긍정의 힘으로 더욱 기여해 주실 때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계평화와 국민화합을 염원하는 오늘의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개산 70주년을 마음 깊이 축하드리며, 동참하신 모든 사부대중께 제불보살님의 무량가 피가 드리우시길 축원합니다.

불기2559(2015)년 6월 20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